

포도밭 향기를 따라 떠나는

# 세계 와이너리 여행

채지형 / 여행작가 [www.traveldesigner.co.kr](http://www.traveldesigner.co.kr)

오감이 살아나는 가을. 높은 하늘은 푸르고 볼에 부딪히는 바람은 싱그럽다. 이런 밤에는 좋은 이와 함께 와인 잔을 기울이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진다.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포도밭이 있는 곳이라면 금상첨화.

와인 애호가들이 늘어나고 자연 친화적인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와인이 만들어지는 와인농장(와이너리)으로 떠나는 여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을 비롯해 프랑스의 보르도, 칠레 마이포 밸리, 캘리포니아의 나파와 소노마, 캐나다의 오키나간 밸리, 남아공의 스텔렌보쉬 등 세계의 내로라하는 와이너리에는 포도밭과 함께 와인을 즐기려는 여행자들의 발걸음이 찾아지고 있는 것.

반짝이는 햇살 아래 펼쳐진 황홀한 포도밭과 와인 양조장 안에서 수십 년간 저장된 오크통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행자의 마음을 짝 차게 만들어준다. 여기에 신선한 기운이 넘치는 초록 속에서 마시는 한잔의 와인 맛이란! 정신없이 돌아가던 도시의 삶을 뒤로 하고 포도밭 사이에서 잠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다보면 어디에선가 자신감이 포르르 생겨날 지도 모른다. 코와 눈과 혀와 향기, 여기에 마음까지 여유로워지는 와이너리 여행. 선선한 바람이 스며들고 있는 9월, 올 가을에는 와이너리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포도밭

'와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2명 중 한명은 프랑스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는 프랑스가 아니라 이탈리아. 와인 양뿐만 아니라 역사에 있어서도, 이탈리아 와인은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탈리아 와인 하면 페루 리마에서 만난 이탈리아 친구 마르코가 생각한다. 어느 날 그에게 "이탈리아 와인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니?"라고 했더니, 장장 세 시간 동안 그림과 도표를 그려가며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와인에 대한 그의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하던지, 시간이 꽤 흐른 지금도 그의 반짝거리던 눈이 더 없

이 인상적이었다. 그 친구의 와인에 대한 사랑이 이해가 된 것은 이후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으로 와이너리 여행을 떠났을 때였다. 이글거리는 햇살에 더욱 빛을 내는 포도밭들, 그 옆에 그림처럼 몽실몽실 자리하고 있는 올



리브들, 야트막한 구름에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포도나무들은 이탈리아 사람들의 유전자에 와인에 대한 사랑을 이미 심어줬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토스카나로 떠난 와인여행에서 인상에 남았던 곳은 베라짜노 와이너리(verazzano winery)다. 피렌체와 시에나 사이에 있는 키안티 클라시코 지역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밖에서 보면 들판에 성이 우뚝 서 있어 살짝 외로워 보이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이 숨어있다. 베라짜노 와이너리가 있는 키안티 지역은 1716년 메디치가의 대공작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포도와 와인을 양조한 지역으로 공식 선언된 지역이기도 하다.

베라짜노 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키가 크고 잘생긴 나무들이 인사를 한다. 그 옆에는 아름다운 연못과 벤치가 있는 정원이 이어진다. 그리고 성 위에서 내려다보면 부채처럼 펼쳐져 있는 포도밭이 한 눈에 들어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이탈리아 와인 한잔과 시골에서 만든 치즈 한 조각, 그것만으로도 왕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곳이 바로 베라짜노 와이너리다.

## 남아공의 와인마을, 스텔렌보쉬

이번에는 멀리 아프리카로 가보자. 아프리카 와인의 본고장으로 꼽히는 지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스텔렌보쉬. 프랑스 보르도 와이너리가 역사와 전통을 배경으로 한 진중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캘리포니아 와이너리가 최첨단 공정을 통해 만드는 제조공법의 첨단에 대한 믿음을 준다면, 남아공 와이너리는 소박하면서 편안함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스텔렌보쉬 지역은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편이라 레드 와인에 대한 평가가 더 좋은 편이다. 남아공 와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와인은 역시 남아공 고유의 레드 품종인 피노타주. 피노타주는 과일 맛과 향이 깊고 풍부하다. 피노타주와 함께 발달한 신맛을 내는 쇼



비논 블랑과 달콤한 향기를 자랑하는 샤도네이를 차례로 맛보면, 스텔렌보쉬의 대표주자들은 한 번씩 다 만난 셈이다.

와인이 혀과 코를 황홀하게 했다면 스텔렌보쉬의 경치는 눈을 사로잡는다. 끝이 없어 보이는 포도밭이 일부러 줄을 맞춰 선 듯 나란히 펼쳐져 있는 모습은 아름다움과 함께 재미도 안겨준다. 와인 한 잔에 약간 발그레해진 볼을 하고, 살랑거리는 바람을 맞으며 한가롭게 포도밭을 거닐다보면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와이너리 옆에는 장미 꽃밭도 넓게 이어져 있는데, 포도 옆에 장미꽃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 장미를 심어 놓으면 벌레들이 포도밭으로 안 가고 장미꽃으로 가기 때문에, 일부러 포도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미를 심어 놓은 것. 이처럼 꽃의 여왕인 장미꽃도 와이너리에서는 포도를 위해 희생되기도 한다.



## 스완밸리의 샌달포드 와이너리

서호주의 마가렛 리버에는 쉬고 싶은 이들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광활한 자연과 100여개의 프리미엄급 와이너리, 풍부한 문화와 맛있는 레스토랑과 갤러리까지 그저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심은 시작된다.

햇살 좋기로 유명한 서호주에서도 마가렛 리버 지역은 풍부한 일조량과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기름진 땅을 가지고 있어, 와인 최적의 산지로 꼽힌다. 이곳에서 길러진 포도들은 스완밸리의 와이너리로 옮겨져, 와인으로 만들어 진다. 마가렛 리버에서 만들어진 와인의 양은 호주 전체 양에서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프리미엄 와인의 30%가 이곳에서 나올 정도로 질이 좋고 한다.

스완밸리의 와이너리 중 샌달포드 와이너리(sandalford winery)는 안에 식당을 갖추고 있어서 자연 속에서 와인과 함께 멋진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샌달포드라는 이름은 영국 버크셔의 수도원의 이름을 딴 것으로, 이 와이너리는 1840년에 문을 열었다. 샌달포드 와이너리에서도 다른 여느 와이너리처럼 여러 종류의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와인 테이스팅을 해볼 수 있다. 오크향이 나는 분위기 있는 와인부터 과일 맛이 깔끔한 와인, 바닐라 향에 달콤한 와인 등 여러 향의 와인들을 신나게 즐기다 보면, 금방 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